

보도시점 2026. 4. 7.(화) 06:00
4. 7.(화) 석간

배포 2026. 4. 6.(월) 14:00

농식품부·농진청·지방정부·농협 합동, 농업용 필름·비료 등 농자재 수급 및 가격 동향 현장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 등이 국내 농자재 산업 및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용 필름과 비료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는 4월 7일부터 6개 권역(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별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농협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 총 10개 팀, 240여 명을 투입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4월 2일~3일 사전점검을 통해 점검 대상, 항목, 점검반 구성 등 확정

점검반은 농협경제지주에 농업용 필름을 납품하는 주요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원자재(Polyethylene(폴리에틸렌), PE) 사용량·재고량 및 향후 필요량을 확인하고, 제품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재고를 보유하거나 제품 생산을 감축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변동도 확인한다.

필름 등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농협 자재센터 및 민간 자재상에 대해서는 시군별 3~5개소, 전국 약 700여 개소를 선정하여 제품 재고량 및 수요량을 확인하고, 중동전쟁 이후 공급·판매량 및 제품 가격 변화 등을 확인하여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원가 상승 폭을 초과하여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비료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전국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통해 17개 비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자재 보관 상태와 원자재 및 완제품 재고량을 확인하는 등 비료 생산 및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주요 요소사용 비료는 완제품 및 원자재 재고 고려 시 7월까지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으로, 가수요 방지를 위해 지역농협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비료 구매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비료는 농업인의 실수요에 맞춰 적기에 공급·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농업용 필름은 품목별·지역별 수급 불균형 발생 시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지역농협 간 물량 전배 등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원자재 공급 확대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중동상황총괄대응팀	책임자	팀 장	유재형 (044-201-1891)
		담당자	사무관	우현경 (044-201-1424)
			사무관	이민정 (044-201-1895)